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5)



즉 재벌과 부자과세를 유럽 수준으로 늘려야 하고, 부동산 투기를 전면적으로 근절해야 하며, 공공지출(기본소득, 복지·신뉴딜 정책 등)을 크게 늘려 취약 계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대 민주주의 신장과 남북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시기에 후퇴하였다. 문제인 정부도 '촛불시민 무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적폐청산과 개혁'과 '남북 평화통일 기반조성' 공약에 대한 국민과 민족적 기대와 희망에 대해, 비록 '코로나19' 대처와 한일외교·안보정책은 대해 여러 가지 시대상황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3년 수개월 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해 보다 통찰력 있는 인사정책과 과감한 정치행보가 아쉬운 시점에 있다고 본다.

서양의 구미(歐美) 사회는 로마 제국의 '정의란 곧 힘이다(Jus est in Armis)'란 것과 중국제국의 전통적인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夷以制夷)'하는 국제관계나 외교전략과 비슷하게 식민지나 정복국가를 '분리(分割)해서 통치(Divide et Impera)'를 해왔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아편전쟁(1840년) 이후의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19세기에서 1차 세계대전(1914~18년)까지는 대영제국이, 그 다음 바톤을 이어 받아 20세기와 21세기 초반인 지금까지 미합중국(USA)이 세계를 지배해온 정치·외교의 국가철학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른바 '암흑기'라고 하는 서양 중세초기부터 이어져 온 약 1천 년간의 이단박해와 학살에 이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약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1096~1291년)을 치렀었고, 동세서점(東勢西漸)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고대제국(1206~1388)의 유라시아 대륙지배, 영국과 프랑스 간 백년전쟁(1337~1453년)에 이어 유럽의 흑사병 창궐(1347~1351년), 동양 이슬람세력에 의한 헬레니즘의 부활인 르네상스를 가져왔었다. 종교개혁(1516~1585)과 함께 독일 농민전쟁(1525~26), 프랑스의 위그노전쟁(1562~1698) 등으로 자연재해와 함께 이른바 '마녀사냥' 시대(15세기~17세기 중엽)가 겹치면서 로마 가톨릭의 '재종교개혁'이 시작되며 예수회(Jesuit:예수회) 수도회가 1534년 8월 15일 프랑스 파리 몽마르뜨프에서 창립되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 예수회 선교사이자 신부인 이탈리아 출신 마테오 리치(Matteo ; 중국명 :

利瑪竇, 1552~1610)가 한문을 읽어서 천주교 교리서인 "천주실의"를 펴냈고, 아율러 유교의 경전인 사서(四書 : 논어, 맹자, 대학, 중용)를 1595년 라틴어로 번역을 완료하여 북경에서 예수회 본부로 보내졌다. 같은 소속 프랑스 출신 니콜라 트리고(Nicolas Trigault ; 중국명 : 金尼閣, 1577~1628) 선교사·신부 역시 오경(五經 : 시·서·역경)을 1626년 중국 항주(杭州)에서 번역을 완료하여 예수회로 보냈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에서 '백과전서 학파'와 계몽주의 사상이 형성되었고, 백성(민중)의 집단 의지, 혁명사상, 농본주의, 노동가치설 등 많은 동아시아 유교사상들이 유럽의 절대왕권과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대항하여 싸뜨기 시작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오늘날 컴퓨터의 기본원리인 이진법(二進法)도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G. W. 라이프니츠(Leibniz, 1646~1716)에 의해 역경(易經; 주역周易)의 음·양의 효(爻)를 응용하여 만들었던 것이다.

한편 현재 한국 주류 정치계와 학계의 진보·보수의 파국적인 갈등이나 새로운 '사문난적(斯文亂賊)'론 사회의 '마녀사냥'식 인신매도는 학문적 비판 수준을 지나 명예훼손이나 학자의 존재근거를 비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서구에서는 대개 좌파(혹은 좌익左翼)라고 하면 대개 인간의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을 우선시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 중심으로 비교적 개인 사고를 하는 집단을 말한다. 어원은 프랑스 대혁명(1789년) 이후 공화파들이 이룩한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의 좌석 배치에서 재산과 권력, 명예를 가진 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질서'를 내세우는데, 질서를 앞세우는 온건파인 지롱드당을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우파(La Droite)로, 급진파인 자코뱅당은 혁명의 원칙과 지속 및 왕당파의 복귀와 정쟁반대를 외친 그들을 좌파(La Gauche)로 하였다. 참고로 동양에서도 '좌우'는 어순 상 '원쪽(좌)'가 먼저로서 한국과 중국에서도 대개 좌의정이나 좌승상이 우의정이나 우승상보다 상위로 졌다. 단 몽골족 원(元)나라는 반대로 우승상이 좌승상보다 상위였다. 그런데 우리는 광복(해방) 정국과 38도선 분단, 동족상잔의 국제적 성격의 6.25 전쟁을 겪고 약 70여 년간 휴전선에서 대치하며, 미국 검사 출신 상원의원이었던 매카시(J.R. McCarthy)로 인한 광적인 적색 공포를 유발한 이른바 '매카시즘 선풍', 이승만 독재와 '북진통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좌파'라고 하면 공산주의·좌익·용공·빨갱이·간첩·종북·좌빨 등으로 범법자로 감옥에 보내거나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될 위험한 존재로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유교 이상정치인 '대동(大同)·"예기"·"예운"세상'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회교와 현재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의 남북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진정한 정치가나 선비와 학자의 리더십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어"첫 머리에서 공자가 말하는 학이시습(學而時習), 곧 배우고 때때로 익히고 연습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식인보다는 지성인으로서의 실행 실천하는 '지행합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호에 계속>

## 2020 안동권씨대종회 제례위원회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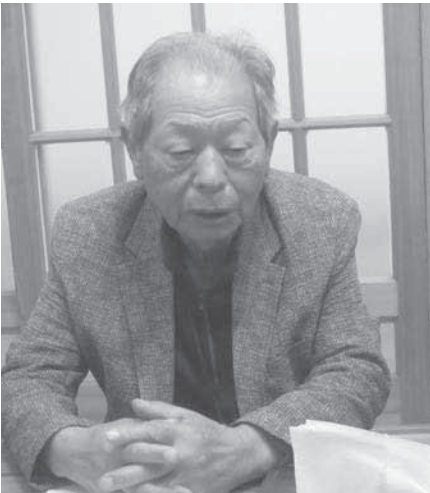


2020 태사공 및 낭중공 추향제를 앞두고 추향봉행을 하기 위하여 안동권씨대종회 제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10월 22일 오전 11시 안동시 평화동 '청운한정식'식당에서 권정창 대종회 제례위원장을 비롯하여 제례위원, 간사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권오의 간사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정창 제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때문에 시조묘소 및 낭중공 단소에 추향제를 봉행하는데 있어서 대종원 제례위원들이 건설적인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오의 간사는 추향봉행(안)으

로 첫째 종전과 같이 정상적 봉행, 둘째 당일입제 축소봉행(사회적 거리두기), 셋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궐사고유(闕祀告由) 등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토의한 결과 둘째 안건인 입제당일 축소봉행하기로 결정했다. 축소봉행 세부내용 중 참석 범위는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망기를 보낸 현관, 각 파종회장, 제유사, 별유사, 능곡회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기타 토의에서 제수준비는 예년에 비해 종류는 같지만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제수 운반은 능곡회원 10여명이 봉사하도록 하



권정창 제례위원장

고 식사는 도시락으로 준비하며 당일입제는 오전 10시 분정은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

주최 측은 현관, 제유사, 별유사들이 추향제때 꼭 지킬 수칙을 광목(廣木)전에 써서 부착해 놓기로 했다. 이 외에도 묘역관리 및 재사조경사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토의도 했다.

시조묘소 및 낭중공 단소의 추향제는 오는 11월 30일(음력 10월 16일) 봉행한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이 식당에서 목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 부호장공파종회 파조 추향제 봉행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영건)는 파조의 일곱 번째 추향제를 10월 10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참제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했다. 도유사(都有司) 권숙동(안동종친회장)를 비롯하여 권영건 파종회장, 권오공 부회장, 권영문 제례위원장, 권태욱 사무국장, 권대수, 권태두, 권정택, 권오명, 권기영 별유사 및 제례위원 등 모두

10명이 참석하였다.

해마다 파조 추향제에는 참제원이 60~70여명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제원을 대폭 감소시켜 최소한의 인원으로 봉행하였다. 파종회는 코로나로 지난 10월 5일 긴급회의를 소집, 파조 추향제에 따른 회의를 한 결과 최소한의 인원으로 봉행할 것을 합의했었다. 이날 권기영 찬자(贊者)의 진행에 따라 관복(冠服)으로

갈아 입은 권숙동 도유사와 도포(道袍)를 입은 권영문 제례위원장이 축문(祝文)을 독축(讀祝)하고 평상복에 유건(儒巾)을 쓴 다른 참제원들은 엄숙하게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숙동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때문에 참제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시했으며 권영문 제례위원장은 "오늘 파조님 추향제에 정성스럽게 봉행한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건 파종회장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파조 추향제에 도유사, 부회장 그리고 제례위원들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일원정 마루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음복례를 하고 나서 내년도 도유사로 선정된 권병균 고문에게 망기(望記)를 써서 보냈다. 이 자리에서 권숙동 도유사가 30만원, 권영건 파종회장이 10만원의 성금을 각각 냈다.

참제원 전원은 사내 상아동 '이정'식당으로 이동, 버섯찌개를 곁들여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0차)

- ◆일 시 : 2020년 11월 15일(일) 오전 10시(시간엄수)
- ◆산 행 지 : 안산 둘레길
- ◆집결장소 :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 장비 등(물컵, 수저는 개인별 지참하시고 1회용은 사용하지 맙시다)

회 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윤) : 010-9027-6179  
총 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0년 1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 오 준

##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0년 11월 8일(일) 오후 1시
- ◆장 소 : 우가촌(가마술설령당)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 5번 출구, 지하철6호선 공덕역 6번 출구→공덕오거리→르네상스타워(옆)→우가촌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택 010-3796-4047

2020년 11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 (010-3680-5057) 북아공파36대

###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민섭